

2015 / 06 / 29 (MON)

IT (소프트웨어/인터넷/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 국내 IT 업종 Comment

전일 국내 IT 섹터는 약보합세. 그리스 채무 협상 지연되며 투심 위축. 엔/원 환율이 5일 만에 900원선 회복한 것은 호재로 작용. 반도체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 반면 디스플레이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덕산하이메탈, 다우기술, 다음카카오, 삼성테크윈 강세. 반면 동반매도세가 나타난 원익IPS,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약세.

종목별로는 하반기 삼성전자 V-NAND 수혜로 턴어라운드 전망되는 덕산하이메탈이 17.2% 상승 마감.

###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전자	619 억	SK하이닉스	-677 억
NAVER	277 억	삼성에스디에	-74 억
다음카카오	116 억	엔씨소프트	-54 억
LG디스플레이	67 억	삼성전기	-38 억
실리콘웍스	20 억	SK C&C	-30 억
LG이노텍	16 억	파트론	-16 억
다우기술	12 억	인피니트헬스	-15 억
바이오스마트	10 억	코나아이	-14 억
위메이드	9 억	엠씨넥스	-13 억
안랩	9 억	원익IPS	-12 억
와이솔	9 억	테스나	-12 억
컴투스	9 억	유니테스트	-12 억

###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다음카카오	320 억	삼성전자	-529 억
엔씨소프트	180 억	SK하이닉스	-389 억
다우기술	84 억	원익IPS	-82 억
SK C&C	77 억	LG전자	-63 억
에스24	27 억	NAVER	-61 억
삼성테크윈	24 억	삼성전기	-59 억
덕산하이메탈	22 억	LG디스플레이	-29 억
다원시스	12 억	위메이드	-29 억
심텍	11 억	삼성에스디에	-23 억
비아트론	10 억	LG이노텍	-16 억
블루콤	9 억	동진세미캡	-14 억
브리지텍	7 억	선데이토즈	-10 억

### 반도체 / LCD 패널 가격

Product	close	1D	YTD
DXI (Index)	6808.57	-0.4%	-10.3%
DDR3 2Gb (Spot)	1.52 \$	-1.3%	-31.2%
NAND 64Gb (Spot)	2.63 \$	0.0%	8.7%

Product	Price	2W	YTD
DDR3 4Gb (Contract)	2.75 \$	0.0%	-23.4%
NAND 64Gb (Contract)	2.61 \$	0.0%	-5.4%
LCD TV 32" Open Cell	83 \$	-3.5%	-11.7%
LCD TV 50" Open Cell	199 \$	-0.5%	-1.0%

### 국내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394.41	-0.2%	-6.6%	284 억	-551 억
KRX Semicon	1,908.20	-1.2%	1.7%	-94 억	-979 억
(코) 반도체	1,012.90	-0.7%	27.1%	-43 억	-70 억
(코) IT H/W	420.94	-0.6%	20.7%	-65 억	-78 억
(코) IT S/W	2,305.63	-0.2%	15.3%	73 억	286 억

### 하드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1,278,000	0.7%	-3.7%	619 억	-529 억
LG전자	49,550	-0.7%	-16.2%	-11 억	-63 억
삼성SDI	116,000	-0.4%	0.0%	7 억	2 억
삼성테크윈	30,550	1.7%	28.1%	7 억	24 억
서울반도체	16,300	-3.8%	-19.3%	-5 억	-7 억
신도리코	66,500	-0.7%	-1.9%	0 억	-1 억

### 반도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SK하이닉스	42,000	-2.6%	-12.0%	-677 억	-389 억
이오테크닉스	93,700	-0.3%	-25.2%	-1 억	-7 억
원익IPS	14,150	-6.0%	1.4%	-12 억	-82 억
리노공업	51,400	-1.0%	34.2%	-7 억	3 억
유진테크	17,450	-3.1%	8.0%	-3 억	1 억

###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53,500	-1.2%	-13.6%	-74 억	-23 억
SK C&C	279,500	0.7%	30.9%	-30 억	77 억
포스코 ICT	5,200	-1.5%	-1.9%	-1 억	1 억
다우기술	21,800	4.3%	82.4%	12 억	84 억

###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58,000	0.8%	-7.6%	277 억	-61 억
다음카카오	123,500	3.1%	-0.1%	116 억	320 억

### 디스플레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LG디스플레이	25,400	1.6%	-24.5%	67 억	-29 억
에스에프에이	48,000	1.8%	-3.3%	-2 억	6 억
솔브레인	48,600	0.2%	51.2%	-1 억	3 억
덕산하이메탈	11,300	17.2%	1.3%	0 억	22 억

### 전자부품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기	52,500	-3.3%	-4.0%	-38 억	-59 억
LG이노텍	106,000	-3.2%	-5.8%	16 억	-16 억
파트론	8,920	2.2%	-24.1%	-16 억	6 억
루멘스	4,750	-2.3%	-32.6%	-2 억	0 억
일진디스플레이	9,180	-3.5%	34.6%	-10 억	-2 억

###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205,000	0.5%	12.6%	-54 억	180 억
컴투스	131,100	-2.2%	-1.1%	9 억	-10 억
NHN엔터테인먼트	57,000	-0.2%	-34.9%	5 억	3 억
게임빌	88,600	-2.1%	-26.6%	1 억	-3 억
위메이드	37,300	-0.4%	-1.3%	9 억	-29 억
선데이토즈	16,900	-2.6%	-1.7%	3 억	-10 억

###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골프존	130,500	0.9%	416.8%	-6 억	-3 억
한글과컴퓨터	18,050	-1.1%	-10.6%	-2 억	1 억
코나아이	32,200	1.1%	-4.5%	-14 억	-1 억
슈프리카	23,700	0.2%	-6.9%	0 억	6 억

### 해외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1.99	-0.9%	3.4%
MSCI Internet	163.65	-0.7%	7.1%
MSCI Software	168.04	-0.8%	2.7%
MSCI Semicon	217.24	-2.3%	-1.3%
MSCI IT Services	124.87	0.0%	6.0%

###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553.06	-0.9%	4.2%
Facebook	88.01	0.0%	12.8%
Tencent	159.90	-1.3%	42.1%
Baidu	203.36	-2.0%	-10.8%
Yahoo	40.06	-2.4%	-20.7%

###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5.26	-0.9%	-2.6%
Oracle	40.99	-0.2%	-8.9%
SAP	72.97	-0.7%	4.8%
EMC	26.45	-2.2%	-11.1%
Symantec	23.75	-1.7%	-7.4%

### Handset

	close	1D	YTD
Apple	126.75	-0.6%	14.8%
Nokia	7.23	-0.1%	-8.0%
Lenovo	10.94	0.0%	7.3%
ZTE	20.05	-4.1%	19.1%
HTC	77.0	1.7%	-45.8%

### Semicon

	close	1D	YTD
Intel	31.02	-3.0%	-14.5%
Qualcomm	64.67	-0.9%	-13.0%
Texas Instruments	52.90	-1.7%	-1.1%
Micron	19.66	-18.2%	-43.8%
Toshiba	422	-1.7%	-17.6%
Renesas	922	-1.8%	12.0%
STMicro	8.49	0.6%	13.7%

###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65.46	-0.4%	3.1%
HP	30.53	-2.2%	-23.9%
Accenture	99.00	-0.5%	10.8%
Fujitsu	725	-0.5%	12.5%
NTT Data	5,500	1.1%	21.8%
CSC	66.76	0.6%	5.9%

### Hardware

	close	1D	YTD
GE	27.09	0.2%	7.2%
Panasonic	1,774	0.0%	24.3%
SONY	3,879	0.0%	56.9%
Whirlpool	177.81	-0.3%	-8.2%
Electrolux	268.40	1.9%	17.3%
Haier	21.00	-1.2%	13.8%

### Components

	close	1D	YTD
Murata	21,805	0.3%	64.6%
KYOCERA	6,573	-1.1%	18.3%
Nidec	9,137	-0.1%	16.4%
TDK	9,620	-1.4%	34.4%
Ibiden	2,144	0.1%	19.9%

### Display

	close	1D	YTD
Sharp	158	-1.3%	-41.0%
Japan Display	478	-4.4%	29.2%
AUO	4.39	-2.0%	-13.8%
Innolux	17.50	9.4%	13.6%

## 반도체 Semicon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덕산하이메	17.2%	실적전망

### News & Issue

#### 덕산하이메탈, 삼성전자V-NAND 수혜로 턴어라운드 전망

덕산하이메탈은 2H15 영업이익49억원(308%,HoH)으로 턴어라운드할 전망이다. 1)Apple A9과 퀄컴 스냅드래곤820 출시에 따른 Solder Ball 부문의 성장과 2)삼성전자V-NAND 신규진입에 따른 유엠티(중속회사)의 흑자전환이 예상되기 때문. 삼성전자 시안 2차 투자 및 팹택공장 증설에 따른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2H15 기존 Solder Ball의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3Q15 Apple의 A9, 4Q15 퀄컴의 스냅드래곤 820이 출시 예정됨에 따라 동사의 Solder Ball 출하량이 급증할 전망이다. 올 하반기는스냅드래곤 820의 출시가 앞당겨져, 예년대비 실적성장의 폭이 클 것으로 판단됨.

Solder Ball은 크기가 작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유. 고객사의 DRAM, V-NAND, System LSI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Solder Ball의 크기가 작아지고 사용량은 증가함. Solder Ball 부문의 중장기적 실적개선 예상.

2H15 유엠티(중속회사, 지분율70%)가 흑자전환할 전망이다. 유엠티는 삼성전자 V-NAND로 HCDS를 납품하고 있었으나, 원재료 공급업체의 화재발생 이후 생산이 중단됨. 최근 신규 원재료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HCDS의 공급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 삼성전자 V-NAND향 공급이 큰 폭 증가할 전망이다. HCDS는 '충간절연막' 형성용 전구체로서, V-NAND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사용량이 증가하는 특성 보유. V-NAND로부터의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SK하이닉	-2.6%	최근이슈

### News & Issue

####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실적 부진에 동반 하락세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경쟁사인 마이크론의 실적이 부진 여파에 동반 하락세.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25일(현지시간) 3분기 순이익이 4.91억달러, 주당 42센트로 전년동기 8.06억달러, 주당 68센트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힘. 이는 전년대비 38% 급감한 수치.

D램 판매량은 보합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D램 평균 판매가격이 10% 하락한 것이 실적악화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SK하이닉스도 실적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해석됨.

Region	종목	1D	Category
해외	Micron	-18.2%	주가급락

### News & Issue

#### 마이크론, 3분기 순익 급감, D램 가격 하락 여파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며 급락세. 25일(현지시간)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지난 4일로 마감한 3분기 순이익이 4.91억달러, 주당 42센트로 전년동기 8.06억달러, 주당 68센트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힘. 전년대비 38% 급감한 것. 경상외 비용을 제외한 수정 순이익은 주당 54센트로 컨센서스인 57센트를 하회.

매출액은 38.5억달러로 3% 감소했고 이 역시 컨센서스인 39억달러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 D램 판매량은 보합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D램 평균 판매가격이 10% 하락한 것이 실적악화 주요 요인으로 꼽힘.

마크 더컨 마이크론 CEO는 "3분기 PC 부문 수요 부진으로 역풍을 맞았다"며 "장기적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첨단 기술의 제품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 마이크론 주가는 이날 하락한 것을 비롯해 올 들어서만 30% 이상 하락세.

##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다음카카오	3.1%	실적전망

### News & Issue

#### 다음카카오, 하반기부터 본격적 실적 개선 전망

다음카카오는 6월 23일부터 카카오톡 내에서 여러 콘텐츠를 제공하는 '카카오채널'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 하반기에는 카카오택시의 일부 유료화와 택시 유사 서비스 및 카카오오더, 타임쿠폰 등의 O2O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

하반기에는 카카오택시의 일부 유료화(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와 인접영역 서비스(대리운전 서비스 추정), 그리고 카카오오더, 타임쿠폰 등의 O2O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 카카오택시의 수익화는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고급 택시 호출이나, 대리운전 등으로 서비스 확대 시 수익화 가능. 서비스 활성화 시 추가적인 수익 추정 상황 요인. 카카오채널의 본격적인 유료화 및 기타 O2O 서비스 출시가 3~4분기로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이익 개선 효과는 4분기부터 나타날 전망이다.

## 하드웨어 Hard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삼성테크윈	1.7%	최근이슈

### News & Issue

#### 삼성테크윈, 한화와 방산분야 시너지 창출될 전망

삼성테크윈은 매출차질, 매각위로금, 자산건전화 이슈 등 불확실 변수 혼재. 보안솔루션과 반도체시스템은 브랜드 가치 희석에 따른 매출감소, 4월 이후 파업영향으로 전사적 매출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악재.

다만, 손익 측면에서는 보수적 비용집행을 통해 매출감소 영향 일부 상쇄 가능할 전망.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일회성 비용으로 위로금 1,000억원 이상 집행예정, 하반기 자산건전화 비용예상.

한화그룹 편입완료 이후 새로운 비전과 경영전략에 기반한 매매권고. 모멘텀으로는 보안솔루션, 반도체시스템, 압축기 등 비주력분야 구조조정 여부, 한화와 방산분야 시너지전략, 항공기 부품 육성전략, 자회사 인탈레스의 활용방안 등.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서울반도체	-3.8%	주가하락

### News & Issue

#### 서울반도체, 중국업체 투자확대는 장기적인 부담요인

서울반도체의 점진적 실적개선 추세는 긍정적이거나 중국업체의 투자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및 가격경쟁심화는 수익성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부담요인이 될 전망. 2분기 TV BLU 부문은 수요 정체 및 판가인하 지속으로 전분기 대비 부진 지속될 전망. 모바일 부문은 해외 고객사 재고조정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 감소할 전망.

최근 Sanan Optoelectronics 를 포함한 중국LED 업체는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투자확대에 나서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지배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중국 Sanan Optoelectronics는 국내LED 업체들의 상황과 달리 15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12.2% 성장하였고 영업이익률은 33.6%로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 추세. 중국업체의 투자확대와 시장지배력 강화는 국내 LED 업체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부담요인이 될 전망.

##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 News & Issue

#### 모바일게임 '대박' 노린다, 게임업계, 뜨거운 여름

2015년 국내 게임시장은 여느 해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 수년전 국내 시장 한 축을 담당했던 중견 게임사들이 그동안 준비한 모바일 야심작으로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때문. 이들 업체는 위메이드, 웹젠, 와이디온라인, 드래곤플레이, 한빛소프트, 액토즈게임즈, 인크로스 등 7곳으로 모두 '모바일 사업 강화'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

이 가운데 위메이드는 업계 내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음. 얼마 전 '이카루스' 등 PC온라인게임 3종의 국내 퍼블리싱 권한과 모바일게임 운영을 외부 업체에 넘김. 모바일게임 개발에만 '올인' 하겠다는 것. 그만큼 부진 탈출에 대한 의지도 각별.

웹젠은 최근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이 대박 흥행을 기록하면서 화제의 중심. 뮤 오리진은 웹젠의 간판 게임인 뮤의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중국 업체가 제작한 게임. 회사 측은 IP를 활용한 게임사업 다각화 전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퍼블리싱 확대에 나서.

와이디온라인도 모바일게임 '갯 오브 하이스쿨'이 흥행하면서 오랜만에 시장에서 부각됨. 갯 오브 하이스쿨의 뒤를 이을 야심작으로 올 하반기 3종의 모바일게임 출시를 준비 중.

드래곤플레이는 올 하반기 여느 해보다 많은 모바일 신작 출시를 예고. 모바일 총싸움(FPS)게임과 가속스캔들2 등 다양한 성장동력을 공개할 계획. 온라인 개발명가의 이미지를 모바일에서도 이어가겠다는 것이 목표.

한빛소프트는 지난해에 이어 모바일게임 출시 행보를 가속화. 재도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천지를 베다' 7월 출시에 이어 '세계정복2'와 '모바일 오디션'(가칭), '헬게이트 모바일'(가칭) 등이 하반기 출시 예정작.

액토즈게임즈 역시 모바일게임 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중. 올해 최소 15종 이상의 모바일게임 출시를 밝힘. 대다수 업체가 모바일게임에 올인하는 것과 달리 온라인게임 출시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음. 올 하반기 대형 온라인게임 '파이널판타지14' 출시 예정.

인크로스는 모바일게임 퍼블리셔 브랜드 디엡스게임즈를 앞세워 이미 상당수의 게임을 출시, 꾸준한 성과를 보이는 업체. 올 하반기 캐주얼 장르를 포함한 5종의 신작을 출시, 디엡스게임즈의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들을 공략할 계획.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삼성전기	-3.3%	최근이슈

**삼성전기, HDD모터사업 접어, 비주력부문 구조조정**

삼성전기가 HDD 모터 사업을 정리하고 추후 실적이 저조한 비주력 사업 부문의 정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26일 삼성전기는 공시를 통해 HDD모터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잔여 자산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힘. 삼성전기 측은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HDD모터 사업을 정리한다"며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나 재무상황 및 손익구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언급.

지난 1분기 말 기준 HDD모터 사업이 삼성전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준. 삼성전기 관계자는 "일본, 태국, 중국 HDD 모터 생산라인이 있다"며 "일본 법인은 정리하고, 태국과 중국 쪽 자산은 매각할 계획"이라고 언급. 아울러 "한국 본사의 HDD모터 R&D 인력 230여명은 다른 사업부 재배치되거나 희망퇴직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임.

삼성전기는 지난 2012년 세계 2위 HDD모터 업체인 일본 알파나를 약 1473억원에 인수함. 그러나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SSD 판매가 늘면서 HDD모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데다 1위 업체인 일본 니덱(NIDEC)을 넘어설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자 '사업 정리'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임. 니덱은 세계 HDD모터 시장에서 85% 수준의 점유율을 가진 업체. 삼성전기의 이번 사업 포기로 세계 HDD모터 시장은 니덱이 독점하게 됨.

업계에선 삼성전기가 HDD모터 외에도 실적이 저조한 비주력 사업 일부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 삼성 그룹은 지난해 10월 실적이 부진한 삼성전기의 경영진단을 실시. 그 결과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비주력 사업은 대폭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짐.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29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6월 2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6월 2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